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이 본 인간(2)
(Calvin on Man (2))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4 no.1 (May, 1996):161-173

접적인 목적과 먼 목적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목적을 예리하게 구별하여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역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종말적 왕국이 임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한 것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교회에게 확증하고 있다. 선한 것의 최후 승리는 각 성도가 누리게 될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일이고, 동시에 이 최후 승리는 우주적인 완성된 승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후 승리가 처음부터 종말의 마지막까지 개인적(individualistic)이며, 동시에 공동적(corporate)이고, 국가적이며, 국제적(international)이고 우주적(cosmic)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⁸⁵⁾

〈다음호에 계속〉

85) cf. J.W. Bowman, "The Book of Revelation," *IDB* 4, pp. 64-65; P. Carrington, *The Meaning of the Revelation*(New York: Macmillan, 1971), pp. 395-416; E. K. Semann, "On the Topic of Primitive Christian Apocalyptic," *Apocalypticism(JTC 6)*, ed. R.W. Funk;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9), pp. 99-133; W.R. Murdock, "History and Revelation in Jewish Apocalypticism," *Interpretation*, 21(1969), pp. 167-87; E.H. Peterson, "Apocalypse: The Medium is the Message," *Theology Today*(1969), pp. 133-41.

칼빈이 본 인간(2)

신 복 윤

〈조직신학, 교수〉

〈목 차〉

- | | |
|---------------|------------------|
| 1. 하나님의 형상 | a. 원죄 |
| 2. 인간의 구조적 성질 | b. 죄의 전가 |
| 3. 범죄한 인간 | 4. 은혜언약 안에 있는 인간 |

** 지난 호에 이어 3과 4를 실습니다.

3. 범죄한 인간

하나님은 "아담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나무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명령의 유일한 목적이 그가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며, 악한 정욕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동안은 영생을 바랄 수 있다고 한 약속과, 그와는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한 무서운 경고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었다.”¹⁾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 벌을 받게 된다.

칼빈은 교만이 모든 악의 시초라고 한 어거스틴과는 달리, 타락의 시초를 불순종이라 하고 타락의 뿌리를 불신앙이라고 주장한다.²⁾ 바울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가르친다(롬5:19). 이 불순종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진리에 대한 멸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는 데서 온다고 칼빈은 믿고 있다.³⁾ 이 불순종과 불신앙은 야심과 교만과 배은망덕을 낳아 “아담은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파렴치하게 경멸하였다.”⁴⁾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이 곧 원죄(原罪)이다.

a. 원죄(原罪)

원죄의 문제는 신약에서 이미 바울이 제시한 바 있지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신학상 첨예화하였다. 칼빈은 초대교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그들의 설명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한다.⁵⁾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에 동의하여, 아담의 죄는 온 인류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원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이며,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고, 둘째로는 성경에서 “육체의 일”(갈5:19)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1) *Inst.*, II.1.4.

2) *Ibid.*

3) *Ibid.*

4) *Ibid.*

5) *Inst.*, II.1.5.

만든다”⁶⁾

우리의 본성의 모든 부분은 철저히 손상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 정죄는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무죄하고 아무 책임이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에 함께 말려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죄를 자주 “타인의 것”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각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라고도 하였다.⁷⁾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고 하여 이 사실을 명쾌하게 증언한다. 그들은 원죄에 둘러싸여 있으며 부패로 더럽혀져 있다. 그러므로 “젓먹이들까지도 모태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에 있는 것이다. 아직은 그들에게서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씨앗은 그들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⁸⁾

이 부패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고 칼빈은 표현한다.⁹⁾ 원죄는 원시적 의의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각종 악을 풍부하게 생산하는 능력과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원죄를 또한 육욕으로 보고, 인간은 전적으로 육욕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에게 있는 것은, 이해에서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는 영혼에서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육욕으로

6) *Inst.*, II.1.8

7) Augustine, *On the Grace of Christ and on Original Sin*,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p.253.

8) *Inst.*, II.1.8.

9) *Ibid.*

더럽혀지고 가득차 있다.

아담의 타락은 온 인류를 부패 속으로 몰아 넣었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 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지을 수 없다.¹⁰⁾ 왜냐하면 “그가 전염시킨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¹¹⁾ 아담의 죄는 또한 우리의 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역시 인간성의 뿌리이기도 하다. 칼빈은 쥘빙글리와는 달리 이 교리를 어린 아이에게도 관련시켜 짓먹이들까지도 그가 받을 저주의 책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유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유죄한 것이다.

아담의 타락 후 죄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 “저급한 욕망이 그를 유혹했으며” “불신앙이 바른 지성의 보루를 점령했고, 교만이 심정의 밑바닥까지 침투한 것이다.”¹²⁾ 칼빈은 로마서 3:1-20; 에베소서 4:23; 로마서 12:2; 8:6; 8:7 등 여러 구절에서 원죄에 대한 성경적 묘사가 “새롭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영혼의 우수성과 존귀함이 상처를 입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으며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할 형편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여 인간의 형편을 설명하였다.¹³⁾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러나 본성에서 타락이 온 것은 아니다. 타락은 “처음부터 본성 안에 있었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첨가된 성질이라는 것을 가

10) *Ibid.*, I.1.7

11) *Inst.*, I.1.8

12) *Inst.*, I.1.9

13) *Ibid.*

리킨다.”¹⁴⁾ 그러므로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가장 작은 것도 기뻐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중 가장 고귀한 피조물을 적대시하시는 이유는 피조물 자체가 아니라 피조물의 그 부패 때문이다.¹⁵⁾

이러한 이유로 칼빈은 원죄의 범위를 인간의 한 부분에만 국한시키는 것을 거절하고, 인간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¹⁶⁾. 그러므로 “거기서 생기는 부패를 소위 감각적 충동에 국한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이다.”¹⁷⁾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로 돌려야 한다”¹⁸⁾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죄는 단순히 우리가 범하는 악한 행동을 위한 명칭만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 하에서 인간성 자체의 경향이며 성벽(性癖)이다. 우리가 범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는 원시적 의의 상실이며, 모든 종류의 특수악과 부패를 저지르게 하는 성향이다. 아담의 최초의 죄의 본질은 교만, 불순종, 불신앙인데, 이것들은 배은망덕에서 나왔으며, 또한 그 후손에게서 다양하게 반복되었다.

b. 죄의 전가

칼빈은 죄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 어떻게 전가(轉嫁)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담의 부패가 생물학적으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는 유전설적 입장을 반대한다. 그는

14) *Inst.*, I.1.11; I., 1.2 참조.

15) *Ibid.*

16) *Inst.*, I.1.9

17) *Ibid.*

18) *Ibid.*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요3:6)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부패한 것은 생식 과정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장성한 것처럼, 역시 그 안에서 그의 은사를 우리에게서 박탈한 것이다”라고 하여 유전설을 부정하였다.¹⁹⁾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부터 각자의 악덕과 부패를 유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두가 부패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즉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던 것을 인간으로부터 취해 가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던 은사들을 아담으로 인하여 빼앗기게 된 것이다. “아담이 그 받은 천품들을 잃었을 때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잃게 된 것이다.”²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죄한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 되었든 기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실 권리도 그에게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것을 빼앗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이다.”²¹⁾ 하나님은 아담의 인격 안에서 인류 전체에게 이 형벌을 가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담의 인격 안에서 대표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 조상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 우리도 아담과 함께 동일한 부패와 타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며 온 인류의 대표이다.²²⁾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이며 그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부모에게서 악덕과 부패를 물려받은

19) *Comm. on John 3:6*

20) *Inst.*, I.1.7

21) *Comm. on Genesis 3:6*

22) *Comm. on Psalm 51:7*

것이 아니라, 한 아담 안에서 동시에 부패하게 된 것이다.”²³⁾

칼빈은 사도바울의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설명에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며, 인간성의 뿌리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아담이 부패한 때에 인류는 당연히 부패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전달이나 분여(分與)를 통하여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즉시 의와 생명은 아담에게서 잃었다가 그리스도에게서 회복된다는 결론이 따른다. 또 죄와 죽음은 아담을 통해서 잠입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결론이 따른다.”²⁴⁾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아담은 인류를 자기의 멸망에 끌어넣어 자기와 함께 멸망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는 은혜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5:19).

칼빈은 한편 다소 수정된 유전설의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칼빈은 아담이 온 인류의 언약적(言約的) 대표이며 자연적 머리라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²⁵⁾ 그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생식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가된다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패했고, 자녀는 다시 그 후손에게 대대로 병을 옮겨 주었다. 바꿔 말하면 아담 안에서 시작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간 것이다.”²⁶⁾ 이 주장대로 보면 칼빈은 유전설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오염의 원인이

23) *Comm. on John 3:6*

24) *Inst.*, I.1.6

25) *Inst.*, I.1.6

26) *Inst.*, I.1.7

“육이나 영혼의 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은사로 주셨던 것을 사람이 자기의 후손들을 위하여 얻었다가 동시에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데 있는 것이다”²⁷⁾라고 주장함으로써, 원죄는 육신의 출생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정으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직접전가설은 개혁파 안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학설이다. 하지(C. Hodge)는 “칼빈, 베자(Beza), 그리고 튜레틴(Turretin)과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창조론자였다”고 말한다.²⁸⁾ 칼빈주의 신학은, 각 영혼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다고 하는 영혼 창조설을 찬성한다. 여기서 아담은 온 인류의 언약적 대표인 동시에 자연적 머리이기도 하다. 그는 온 인류를 언약적으로 대표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의 죄는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었다. 이 직접적인 전가는 모든 사람을 범적인 죄책의 상태에 있게 하였다(롬 5:12-19).

4.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타락후 인간은 구세주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창세기 3:15에서 그 구세주는 처음으로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칼빈은 아담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음 글에서 보여준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하의 족장들은 이와 같은 말씀의 조명으로 하나님에게 밀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불멸하는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갔다고 나는 단정한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참여했으며, 이 참여에는 영

27) *Ibid.*

28) C. Hodge, *Systematic Theology* II. iii

생의 축복이 없음을 수 없기 때문이다.”²⁹⁾

칼빈은 이 언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께서 자비의 언약을 실시하실 때에 질서정연한 계획을 견지하셨다. 즉 세월이 흘러 완전계시의 날이 접근함에 따라 주께서는 매일 계시를 더욱 더 빛나게 하셨다. 따라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 하셨을 때에는(창3:15), 그것은 미약한 불꽃이 비치는 정도였다. 그 후에 점점 빛이 더욱 밝게 되어 더욱 강하고, 더욱 더 넓게 광채를 퍼뜨렸다. 드디어 모든 구름이 흩어지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완전히 비추셨다(말4장 참조).”³⁰⁾

“인류 전체는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³¹⁾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게 되었다. 인간의 허물 때문에 “무고한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영혼”은 절망에 빠졌고, 우리의 “마음”도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감각”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리만큼 약하게 되었다.³²⁾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믿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³³⁾ 확실히 “첫 사람의 타락 후 중보자를 떠난 하나님 지식은 구원을 얻는데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³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와 모든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도 숭엄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와 같은 죽을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29) *Inst.*, II. 10.7

30) *Inst.*, II.10.20

31) *Inst.*, II.6.1

32) *Ibid.*

33) *Ibid.*

34) *Ibid.*

것이다”.³⁵⁾

옛 언약까지도 중보자가 없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중보자를 떠나서 하나님은 저 고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고, 또 은혜를 받는다는 희망을 주신 일도 없다”.³⁶⁾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는 인류와 화해하실 수 없으므로, 율법 하에서 거룩한 조상들이 믿어야 할 대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제시하였던 것이다. 본래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 받을 인간이 생명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고 한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하여 확증한다.³⁷⁾ 주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빛”(요8:12)이라 하셨으며 “양의 문”(요10:7)이라 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하셨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인간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비록 자신의 허물 때문에 큰 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비록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은혜를 주신다”.³⁸⁾ 그러나 “의와 불의는 화해할 수 없으며, 이 불화는 영구히 화해시킬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죄인인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 따라서 적대관계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며, 우리와 완전히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제시된 속죄로 우리 안에 있는 모

35) *Inst.*, I. 6.4

36) *Inst.*, I. 6.2

37) *Inst.*, I. 16.1

38) *Inst.*, I. 16.3

든 악을 일소하신다”.³⁹⁾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를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⁴⁰⁾ 칼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4:19)고 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실을 증명한다.

칼빈은 바울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 그 사랑은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기초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선언하셨다(요3:16). 칼빈은 이 사실에 대한 독자들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거스틴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이 없다. 우리가 성자(聖子)의 피를 통하여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화해를 얻기 전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시던 자들을 이제부터 사랑하시기 시작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해석해서는 안된다. 도리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와 화해한 것이다”.⁴¹⁾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폐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어떤 방법으로 없이 하셨는가? 이에 대하여 칼빈은 “그의 복종생활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

39) *Ibid.*

40) *Ibid.*

41) *Inst.*, I. 16.4

을 성취하셨다"고 답한다.⁴²⁾ 칼빈은 바울의 증언을 인용하여 이를 더 확실히 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는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생애 전체에 확대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갈4:4,5).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셨다.

칼빈은,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유한 특색이라고 주장한다.⁴³⁾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는 여러 성경구절들을 인용한다.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마20:28)고 하셨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1:29)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롬4:25)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죽음으로 말미암아...5화목되었으니라"(롬5:9,10)고 하였다. 바울은 또한 처음과 나중을 전부 포함시켜서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자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7,8)고 하였다. 죽음 자체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종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양은 특이한 신비를 나타낸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서도(신 21:23)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니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를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들어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기 위해서였다".⁴⁴⁾ 칼빈

42) *Inst.*, I.16.5

43) *Ibid.*

44) *Inst.*, II.16.6

은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점을 더욱 명백히 하였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5:21). 그리스도는 무죄하셨지만 우리가 지은 죄악의 수치와 비난을 받으시고, 대신 자신의 순결을 우리에게 입히신 것이다.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드려 속죄제물로서 죽게 하신 것은, 그의 희생으로 모든 배상을 치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⁴⁵⁾ 만일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의 구속과 몸값과 대속물"⁴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를 씻어 버리는 목욕대야가 된 것이다(참조, 엡 5:26; 딤후3:5; 계1:5)".⁴⁷⁾

45) *Ibid.*

46) *Ibid.*

47) *Ibid.*